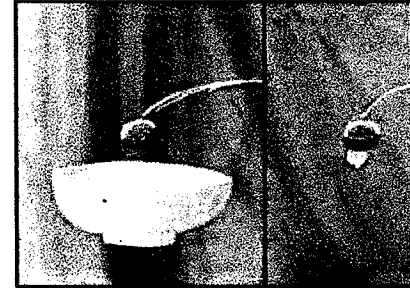


나의 삶, 나의 하나님

어느 북한동포의 간증(어머니의 신앙)

어머니께서 "옛날 노래야" 라며 남몰래 찬송가 가르쳐 주셨죠. 내가 태어나서 자란 평안북도 피현군은 거의 모든 군민이 기독교도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아버지는 장로였고, 어머니는 1971년 돌아가시는 날까지 곳곳이 신앙을 지키셨다. 어머니는 새벽 1-2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매일 이불 속에서 기도하셨다. 광복 직후 남으로 내려간 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은 통일밖에 없다고 믿으셨기 때문에 '평화통일을 향한 염원'은 빠지지 않는 기도제목이었다. 나는 넷째 딸이었지만 결혼 후에도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살았던 덕분에 신앙을 이어받을 수 있었다. 내가 북한에서 마지막으로 성경을 본 것은 1947년이었다. 당시 북한 당국은 기독교인 집안을 수색해 성경과 찬송가책 등을 압수했다. 그 후로는 어머니의 구전으로 찬송가와 성경을 익혔다. 1996년 중국으로 가서 50 년만에 성경과 찬송가책을 다시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대부분 머릿속에 들어 있었다. 내가 모르는 찬송가는 거의 한 곡도 없을 정도였다. 내 아이들도 그렇게 신앙을 이어 받았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으로 시작되는 찬송을 들려주면 아이들은 '사탕과자도아닌데 어째서 말씀이 달다는 거냐'고 묻기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배워나갔다. 가끔 기독교인들이 어디에서 발각되어 처형되었다는 얘기가 들려오기도 했다.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사람들이 없는 틈에 찬송가를 불렀다. 찬송가는 '산타 루치아'나 '돌아오라 소렌토로' 등의 가곡과 함께 부르기도 했다. 학교에서는 배운 적이 없는 이런 노래들을 아이들도 좋아했다. 아련한 그리움을 일으키는 이런 금지 곡을 우리는 '옛날 노래'라 불렀다. 아이들에게는 찬송가도 처음에는 '옛날 노래'라며 가르쳤다. 아이들은 '옛날 노래'를 바깥에서 부르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나의 남편은 기독교 신자가 아니었지만 1987년께 믿음을 갖게 되었다. 그가 하루는 내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는 것이었다.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남편에게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던 것이 생각났다고 했다. 나중에 영문을 알았다. 북한에서는 출근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이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를 닦는 '정성사업'이다. 이 일을 하다가 남편은 그것을 깨뜨려버린 것이다. 북한에서는 이보다 무서운 일은 없다. 새파랗게 질린 남편은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한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 남편은 무사할 수 있었다. 때마침 병원에 검열대가 닦쳐 15일간 검열을 받느라 당 비서가 남편에 대한 조치를 잊고 넘어간 것이다. 10대 원칙위반의 경우 3일 안에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당비서도 문책을 받게 돼 있어, 아예 '없었던 일'로 하기로 한 것이다. 1990년대에 들어 얼마간 숨통이 트였다. 나라가 어려워지면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2001년 교회생활: "QT하는 갈보리 교인" 갈보리 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 섬김과 봉사 *익명성 - 명예
제 3권 3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1년 1월21일
☎269-8677/021-292-1639, ✉229A Ponsonby Rd. Ponsonby(Samoan Church)		



누군가 내게 충고나 비판을 했을 때 그것을 수용했다면 당신은 그 사람보다 큰 그릇입니다.

1983년 영국 이스트본에서 열세살 소년이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다. 소년의 이름은 토머스 크레이븐. 소년은 모범생이었으며 자살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소년이 왜 자살을 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그의 일기에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었다.

"우리 가정은 악마의 저주를 받아 가족들이 일찍 죽는다는 소문을 들었다. 죽음이 두렵다. 어차피 죽을 운명이라면 어머니 곁에서 죽는 편이 낫다" 소년을 죽인 범인은 '악의에 찬 헛소문'이었다. 사실 이 소문은 전혀 근거없는 것이었다. 이 가정에 적개심을 품은 한 노인이 퍼뜨린 유언비어였다.

살인은 한 사람을 죽인다. 그러나 험담은 세 사람을 죽인다. 험담을 퍼뜨린 자신과 험담의 주인공과 험담을 들은 사람이 모두 피해를 본다.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기고 저주의 말을 쏟아내면 반드시 저주를 받는다. 물고기는 항상 입으로 낚인다.

주일 야외예배

영광송 Gloria	"Calvary" 1.3절:다같이	다같이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인도자
*찬송 Hymn	23장	다같이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교회소식 Welcome & Announcements		
찬송 Hymn	453장	다같이
기도 Prayer		노은숙 집사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빌립보서 3:1	
부부성가대 Couple Choir		부부성가대
설교 Sermon	기쁘게 삽시다	김성국 목사
찬송 Hymn	40 장 (마지막절은일어서서)	다같이
*헌금기도 Offeratory Prayer		인도자
*응답송 Response Song	'좋은신 하나님'	다같이
*위탁의 말씀		인도자
*축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주일예배 1:30 pm 수요일예배 7:30pm(ST.Stephens) 화요일새벽기도: 6:00

<1월 예배 위원>

일자	헌금위원	주일기도	수요기도	teatime봉사
7	김교섭, 정희자	김교섭	한은영	김성국, 안은주
14	김시욱, 장선주	김영길	최윤호	김교섭, 정희자
21	김영길, 신경화	김영태	최재학	김시욱, 장선주
28	변지웅, 신선숙	노은숙	정희자	김영길, 신경화

'2001년 교회표어
"주일에서 매일중심신앙으로"
<실천 1년 성경완독
사항> 매일 QT(Quiet Time) 생활화

<등록규정>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유로운 등록결정 판단을 위해
3주간 등록권유를 하지 않습니다.

교회소식

1. 성경완독 1년
*그 동안 완독하신 성경완독표는 봉헌함에 넣어주십시오.
*지난주: 신명기 1명, 에스라, 느헤미야 1명, 에스더, 욥기(1) 3명.
2. 2001년 교회목표 "주일중심에서 매일중심의 신앙"- '경건의 시간' 생활화
*실천사항: <매일> "7분 경건의시간-기도, 성경, 찬송"
<주일저녁> "가정 예배"(예배문) 정착
3. 주일 저녁 가정예배문
*올 한 해에는 "경건의 시간"을 생활화하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가정에서 주일 저녁을 배부되는 예배문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4. 새 예배당 입당을 위한 금식기도
*새 예배당 입당이 은혜가운데 진행되도록 금식기도에 동참하여 주십시오.
(금식기도 참가표에 기록- 정희자 집사(중보기도부장)에게 알려주십시오)
*기간: 1월 22일- 2월 3일(2주간)
5. 새 예배당 "입당 준비위원장": 최재학 집사
6. 제2 '약속의 아비' 모임: 26일(금) 7:30 pm
7. 청년부 수련회: *기간: 1월 26-27일(1박2일)
8. 교우소식: 이영권 집사의 쾌유를 위해 기도하여 주십시오.

서 사회통제가 약해졌다. 우리는 서로 믿을 수 있는 신자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 성경이 없으니 십계명을 외워 설교를 대신했다. 몇 사람이 비밀리에 모여 앉아 소박한 예배를 드리는 이 모임이 바깥에서 말하는 북한의 지하교회인 셈이다. 가까운 사람들 중에 남한의 극동방송이나 기독교방송을 몰래 듣는 이들이 생겨나기도 했다. 우리 집에는 단파라디오가 없어 한 친구에게 성경말씀을 좀 적어달라고 부탁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글로 적어 남기는 것은 너무도 위험한 일이었다. 친구는 성경구절을 받아 적은 쪽지를 말아 머리카락 속에 넣고 모자를 눌러쓰고 와서는 구절을 읽어보게 했다. 읽고 난 종이는 불에 태워 없앴다. 얼른 보고 태워버린 그 깨알같은 구절들은 영원히 내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나는 1997년 남편과 함께 한국으로 왔다. 북한에서는 여전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탄압 받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많은 사람들이 북한 땅에서 종교의 자유를 갈망하고 있다. 그들에게 빛이 비취지기를 지금도 쉬지 않고 기도 드린다.